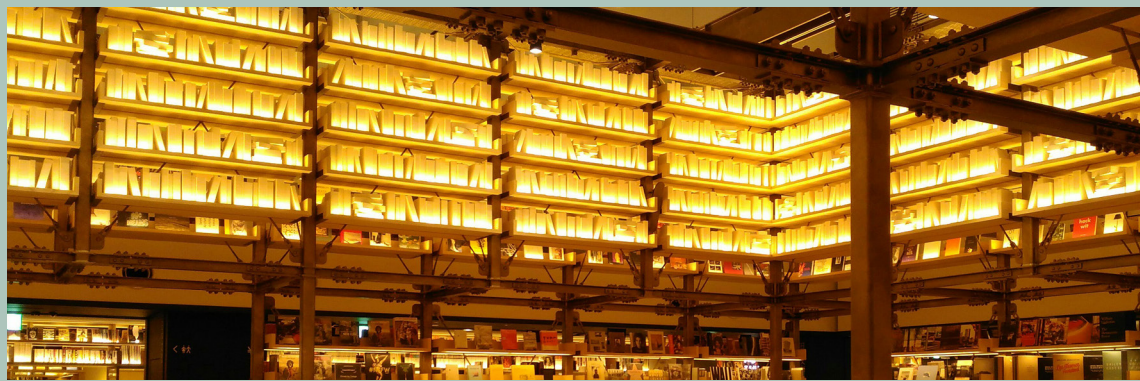




영화 '기생충'과 한일의 새로운 연결

국경을 가로지르고 경계를 옮기는 사건

올해 1월 10일, 도쿄에 사는 일본인 친구가 소식을 전해 왔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영화 ‘기생충’ (일본 제목으로는 <패러사이트 반지하의 가족>)이 일본 전역에서 개봉된 첫날, 가장 먼저 극장에 달려가서 영화를 보고 왔다는 친구는 이선균 배우의 팬이자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즐겨보는 40대 여성이다. 한국에서 ‘기생충’이 개봉된 후부터 이날까지, 극장에서 영화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보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스포일러와 뉴스를 피하면서 지내왔다고 한다. 작년 여름, 급격하게 나빠진 한일관계와 일부 험한여론에 대해 걱정하던 친구에게는 일본의 극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마음껏 즐겁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 없이 많은 일본인들이 영화관을 찾아 ‘기생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만큼 더 즐겁게 느껴졌을 터였다.

실제로 2019년 12월 27일 선행공개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10일, 일본에서 영화 ‘기생충’이 본격적으로 개봉되었다. 그리고 3월 중순인 지금, 영화 ‘기생충’은 여전히 일본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일본 내 한국영화 흥행 기록을 갱신중이다.

‘기생충’이 일본에서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답이 이미 나와 있다. 가장 유력한 대답은 ‘기생충’이 보여주는 완성도와 영화적 재미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었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영화적 완성도, 그리고 SNS시대, 입소문을 타고 급격하게 성장한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의 팬덤 등은 한국영화가 어느새 글로벌한 문화현상의 하나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아카데미상 수상 이후에 보다 흥행에 힘이 실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일부 일본 매스미디어는 한국의 ‘국책’으로서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일본 영화가 왜 아직 아카데미상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비판하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부 험한적 일본인들은 ‘기생충’이 한국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며 <초격차사회>인 한국의 비참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생충’이 현대 한국의 계급문제, 초격차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기생충’에 드러난 현대 한국사회의 맥락들-대만 카스테라, 반지하, 짜파구리 등-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심을 가졌고, 나아가 영화에서 묘사되는 극단적인 계급 차와 경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평이 많았다. 많은 감상평이 ‘기생충’이 내용이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주제의식 면에서 2018년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을 떠올렸다고 하는 점에서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난다. 이런 일본 내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간에, 영화 ‘기생충’을 통해 일본과는 다른 한국사회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일본인의 시각에서 보는 타자로서의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영화 ‘기생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만으로는 영화 ‘기생충’을 둘러싼 일본 내의 움직임의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영화 ‘기생충’에 대한 감상은 결코 국가라는 경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기생충’에 대해 가난의 상품화를 지적하거나 여성 인물의 묘사에 대한 논쟁 등이 있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영화인 기생충을 일본인들이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이 어떤 일본인들과 어떤 한국인을 끌어온다. 아니 그들이 기생충을 오래전부터 끌어왔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현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영화 ‘기생충’의 일본 내 흥행을 뒷받침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경을 따라 갈라지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일본의 특정한 사람들과 한국의 특정한 사람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적 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이들은 기존의 ‘한류’가 대표하는 한국드라마 팬이나 K-POP아이돌 팬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즉 작년 여름 이후 지속된 한일관계의 갈등과 ‘험한’적 분위기의 확산, 그리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상호 무비자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영화 ‘기생충’은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영화에 대한 애정으로 한국영화를 지지하다

일본에서 한국영화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쉬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한류’가 겨울연가의 NHK방송을 계기로 시작되어 한국드라마 붐, 그리고 이어진 K-POP아이돌 붐으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한국영화는 보다 독자적으로 일본에 소개되어 왔고, 팬층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영화가 다른 대중문화 장르와는 달리 보다 작가적이지 예술적인 측면을 지니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소비(영화관에서 영화관람, 혹은 인터넷 등에서 별도 콘텐츠 구매

등)를 전제로 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별히 관심이 없어도 지상파/케이블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드라마나 K-POP에 비해, 한국영화는 상대적으로 일본 관객들에게 미지의 존재, 즉 '제3세계의 영화'로서 간주되었다.

이런 인식을 강화시킨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한국영화가 보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다루고,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보다 잔잔하고 일상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 영화에 비해, 폭력 및 유혈묘사가 많고 현대사나 사회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는 메시지의 강조는 일본 관객들에게 낯설거나 거칠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한국영화를 꾸준히 지켜보고 애호해온 일본의 관객들과 영화 관계자들의 존재야말로 '기생충'이 인기를 끈 기반을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기생충'의 일본 배급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십여 년 전부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꾸준히 일본에 소개해 온 독립계 배급사인 비터즈 엔드(bitters end)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에서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그 누구보다 기뻐했을 이들은 봉준호가 2008년 도쿄를 소재로 제작한 오니버스 영화를 지원한 것으로 계기로 십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던 봉준호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일본사회에 소개해 왔다. 또한 험한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 매스미디어에서 '기생충'을 잘 다루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봉준호 감독의 의사에 따라 스포일러를 방지하는 마케팅 방식을 고안하여 이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봉준호를 응원하는 일본의 감독, 영화관계자, 배우들을 대상으로 영화사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코멘트를 통해 '기생충'의 작품성과 재미를 강력하게 홍보했는데, 실제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에도 소규모 회사인 비터즈 엔드가 배급을 맡게 된 데에는 이런 노력에 대한 봉준호 감독의 감사와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 '한류팬'이 아니지만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에 뒤지지 않는 것이 작년 12월 선행공개 당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의 무대인사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영화팬들의 존재이다. 화려한 K-POP 아이돌이 아닌 이들의 무대인사를 예약하고 실제 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SNS에서 남긴 이들은 주로 영화를 사랑하는 20대에서 40대 여성 팬들이었다. 트위터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들 영화팬들은 일본영화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영화를 향유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보다 열린 영화팬들로 이들에게 2010년대 이후 한국영화는 가장 훌륭한 엔터테인먼트이자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계기

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그 이전의 한국영화팬, 즉 아시아영화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영화에 관심을 갖거나 한국의 역사나 정치 등에 관심을 갖게 되어 영화를 보게 된 영화팬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다양한 국가의 영화를 자신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된 시대에, 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우연히 보게 된 한국영화가 재미있고, 영화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영화, 그리고 관련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한국드라마나 K-POP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던 일반적인 영화팬들 중에 한국영화를 애호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으로는, 한국에서 2010년대 이후 다수 제작된, 폭력적이고 남성성을 강조하는 영화로 분류되는 일군의 영화들 ‘신세계’ ‘아수라’ ‘불한당’ 등-의 영화에 열광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런 한국영화들, 그리고 이런 영화에 주로 출연하는 송강호, 황정민, 정우성 등 중년의 영화배우들에 열광하며 이런 영화에서 묘사되는 한국 남성 간의 유대를 동성애적 관계로 해석하는 패러디를 즐긴다. 한국에서 미국과 영국의 미니드라마 시리즈에 등장하는 남성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브로맨스'적으로 해석하는 여성들의 팬덤이 존재한 것과 같이, 이들은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묘사해온 남성간의 관계성을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패러디하고 향유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글로벌한 영화팬으로서, 한국의 발달한 영화산업이 만들어낸 엔터테인먼트로서 영화를 높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고자 한다. 관심을 가진 계기는 앞에서 살펴본 남성간의 호모소셜(homosocial)을 다루는 영화가 많지만, 대부분 좋아하는 배우나 감독을 따라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접하게 된다. 특히 최근 전세계에 보급된 넷플릭스(Netflix)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향도 중요하다.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콘텐츠에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넷플릭스 등에 공개된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한국영화에 지속적으로 소환되는 한국의 현대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들의 관심은 동시대를 사는 사회로서 한국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는 이슈들-페미니즘 이슈, 사회격차 이슈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치적, 역사적 이슈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고 해도,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사회로서 동시대적 이슈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오히려 한국영화와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현실의 장벽, 그리고 믿음의 기반을 찾는 노력

2월 23일,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에 대해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송강호 배우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송강호는 2000년대 초 한일 문화 교류가 활발하다 최근 들어 양국 관계 악화 영향으로 뜸해진 사실을 거론하면서 “‘기생충’을 계기로 상대국 작품을 서로 성원해 주는 시기로 돌아가면 기쁘겠다고 말했다.”¹ 이런 송강호 배우의 바람과는 달리, 이 글의 서두에서 소개한 일본인 친구는 작년과 올해 각각 한국여행을 계획했지만, 작년에는 악화된 한일관계를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한국여행을 단념했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후 상호 무비자제도가 중지되면서 언제 한국여행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 형성된 공감대와 동시대성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종종 좌절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라면, 지금 한일관계에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기반과 계보를 찾아내고 확인하는 작업일 것이다.

1. [중앙일보] ‘기생충’ 트럼프 혹평에도 북미 8위, 일본선 역대 최대 흥행 <https://news.joins.com/article/23713850>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조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